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성주호에서 상반기 환경정화활동

성낙성 기자 jeb08585@ksmnews.co.kr 입력 | 수정 2025.06.23 19:37



↑↑ 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성주저수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.사진/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

[경상매일신문=성낙성기자]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성주저수지에서 환경정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

환경정화행사는 저수지 환경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쓰레기 수거, 오염물질 제거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이다.

지난 19일 실시한 환경정화행사는 가천면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과 지사 직원들이 함께 성주저수지 내 유입된 영농폐기물, 생활쓰레기, 병,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.

이돈문 성주지사는 “성주호는 성주군 대부분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일뿐만 아니라 경북도에서 가장 큰 저수지이다. 앞으로도 저수지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과 환경정화를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